

# 20~30대 통풍 환자 급증...치맥 탕?

### 20대 남성 5년새 82% 증가 광주·전남도 가파르게 늘어 치맥 인기속 일정부분 영향

광주·전남지역 '통풍'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40~50대 중년 남성의 대표적 질환이었던 통풍이 젊은 층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는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좋아진 데다, 기름진 닭 튀김에 요산 수치를 높이는 퓨린이 함유된 맥주를 곁들이는 이른바 '치맥' 열풍이 일정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에서 통풍(질병코드 M10)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2년 26만5065명에서

2017년 39만5154명으로 49% 증가했다. 환자의 90% 이상은 남성이다. 지난해 기준 남성은 36만3528명, 여성은 3만1626명이 통풍으로 병원을 찾았다.

이 기간 20대 남성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대 남성 환자는 1만882명에서 1만9842명으로 82% 늘어났다. 5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다음으로는 30대 남성 환자가 66% 증가했다. 환자 수 자체는 여전히 40대와 50대 남성이 많았지만, 증가 폭은 20~30대가 훨씬 컸다. 이 기간 40대 남성 환자는 49%, 50대 남성 환자는 38% 늘었다.

광주·전남에서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통풍 질환을 앓은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광주는 2013년 9799명에서 2017년 1만2984명으로 32.5%가 늘었고, 같은 기간 전남도 1만5688명에서 1만9413명으

로 23.7%나 증가했다.

통풍은 요산이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몸속에서 과잉 생산되는 등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이나 콩팥, 혈관 등에 달라붙으면서 생기는 대사성 질환이다.

주로 엄지발가락 부위가 매우 아프면서 뜨겁고 붉게 부어 오르는 증상으로 시작한다. 바람만 스쳐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痛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통증을 동반한다.

이런 통풍은 보통 7~10일간 지속하다가 나가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이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가락에서 시작한 증상이 무릎과 사지로 퍼지면서 '만성 결정성 통풍'으로 진행된다. 만성 결정성 통풍이 되면 관절에 변형이 오고 신장이 돌처럼 굳어지거나 결석이 생기는 등의 합병증에 노출된다.

또 통풍 환자의 80%는 고지혈증이 동반되고 요산이 쌓이면서 동맥이 딱딱해져 뇌출혈 또는 뇌경색 같은 중풍이 발생할 수도 있다.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은 대개 운동과다, 과음, 요산의 전구물질인 퓨린이 많이 든 음식을 과잉 섭취했을 때 과도하게 생성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술은 혈중 요산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소변으로의 배설도 억제하므로 삼가는 게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통풍 환자 중에서는 평상시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술을 마시면 발작처럼 통풍의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술 중에서도 맥주 효모에는 요산의 전구물질인 퓨린이 다량 함유돼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21	달름	18:18
해질	19:39	달짐	04:37

구름많고 낮엔 더워요  
일교차 커 건강 관리 주의 하세요.

광주	구름많음	18/28	보성	구름많음	16/24
목포	구름많음	17/25	순천	구름많음	18/26
여수	흐림	18/23	영광	구름많음	16/26
나주	구름많음	16/28	진도	구름많음	16/25
완도	흐림	17/25	전주	구름많음	17/28
구례	구름많음	16/27	군산	구름많음	16/26
강진	구름많음	17/26	남원	구름많음	17/27
해남	구름많음	17/26	옥산도	구름많음	15/21
장성	구름많음	16/27			



###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북동	0.5~1.0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동~동	1.0~2.0	북동~동	1.0~2.0

###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6:37	01:23
18:45	13:28	
02:11	08:13	
여수	14:12	20:51

### ◇ 주간 날씨

29(화)	30(수)	31(목)	6/1(금)	2(토)	3(일)	4(월)
☁	☁	☁	☁	☁	☁	☁
19/29	15/27	16/28	16/28	16/28	17/28	17/28

### ◇ 생활지수

관심	☀
식중독	☀
매우 높음	☀
자외선	☀
보통	☀
미세먼지	☀

## '라돈 검출' 대진침대 7종의 14종 추가 확인

폐암 유발 물질인 '라돈'에 의한 피폭이 확인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기존에 확인된 7종 외에 14종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14종 모델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의 가공제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수가-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안위가 지난 3일부터 대진침대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뉴웨스턴 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텔·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모델 7종의 매트리스 속커버 및 스펀지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대진침대 중 다른 모델에 대해서도 시료를 확보해 라돈 및 토론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14종을 추가로 확인했다. 14종 매트리스의 수는 총 2만5661개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사이트 수입업체에 대한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은 팔찌, 전기관방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곳으로, 현재까지 피폭선량이 기준치를 넘는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청 앞 라벤더 만개 27일 광주시청 앞 정원을 찾은 시민들이 장미, 라벤더 등 갖가지 꽃이 만개한 꽃길을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서지현 검사 "검찰, 안태근 전 검사장 수사 의지 없었다"

### 광주서 들불상 수상

서지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 26일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을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이날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들불상을 수상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곤란한 사건은 대충 법원에 떠넘기고 무죄 판결이 나오게끔 수사를 해왔

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검사는 이어 "검찰은 수사단이 아닌 조사단을 꾸렸다"며 "필요 없이 지연되고 부실한 수사로 처음부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특히 자신의 성추행 피해 폭로 이후 검찰 조직으로부터 2차 피해를 봤다며 그와 관련한 수사도 촉구했다.

그는 "검찰 조사단이 2차 가해를 주도했는데 이러한 피해 때문에 또 다른 폭로가

나오지 못할 수 있다"며 "2차 가해자들을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으로 5·18 민주화운동 역사 현장에서 들불상을 받은 서 검사는 "8살 어린 나이였지만 5월의 함성과 피와 눈물은 여전히 제 기억에 새겨져 있다"며 "다시는 강자가 약자의 삶을 파괴하고 입을 틀어막는 시대가 되어서 안 된다"고 수사 소감을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이번주 광주·전남 한여름 날씨

이번 주 광주·전남은 '한여름' 같은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평년(22.6~25.7도)보다 조금 높고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도 있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상청은 28일 광주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29일에는 최고 29도까지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또 일요일인 3일에는 구례 32도, 순천·광양·장성·영암·곡성 30도, 광주 28도 등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또 당분간 비소식은 없을 것

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고 이 고기압이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면서 "낮 동안 강한 일사로 인해 체감하는 기온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도 클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기상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28일 광주·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미세먼지는 대기확산이 원활해 '보통' 단계로 전날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31일 발표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를 개편하면서 어떤 정점을 시민참여단에 맡겨 공론화할지 이번 주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31일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대입개편 권고안을 만들면 이를

바탕으로 올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간 적정 비율 ▲ 모집시 ▲ 수능 평가방식(절대평가 영역 확대 여부) 등 3가지 주요사항을 꼭 결정해달라고 국가교육회의에 요청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1등 기업  
www.kwpower.co.kr

안정적 노후연금  
월 250만원  
99KW 설치기준  
자제한 분양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kwpower.co.kr

민음과신뢰의 100년기업  
www.kwpower.co.kr

# 제주도

임야/토지 매입  
(전, 답도가능)

##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 (99KW \* 350기)

## 태양광발전소분양

- 제주 한림읍 2차 115KW (잔여분) 61기
- 경북 의성군 8차 99KW (잔여분) 6기
- 강원 영월군 1차 500KW (잔여분) 3기
- 강원 영월군 1차 99KW (잔여분) 2기
- 충북 제천시 3차 99KW (잔여분) 4기

## 사업설명회 개최안내

▶ 일시 : 2018년 6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 부산 상공회의소 대강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53-1)

◆◆ 예약접수 선착순 100명 ◆◆

태양광 사업 부지 (14만8천평)

제주 아덴힐 리조트

아덴힐CC

캐슬릭스제주CC

제주신화월드

제주국제대학교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23번지 외 11필지 (총 148,260평)

제주공항에서 24KM

태양광 사업 부지

관람단지에서 17KM

중문관광단지

태양광 설치 후 잡종지 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 30년내에 홍콩,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발전 가능성

주변 7개 골프장 운영 및 대규모 중국 자본 투입 개발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 중간지점 위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사업 한전과의 거래로 인한 안전성 월수익 약 250만원

신기후 체제에 따른 유망사업 화석에너지에서 청정에너지로의 대전환

빛나는 투자 21세기 노후연금!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 ◆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 ◆ 한전에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사업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 (제 2013-10-013032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사업면허(제 대구-00973호)

www.kwpower.co.kr

KYUNGWONPOWER

## 경원파워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64(만촌동 1331-8)

상시 방문 상담 가능

T) 1644-4192

H) 010-5110-5660